

요약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 핀테크 기술 발전, MZ세대 소비 수요 증가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이하 'BNPL') 서비스 시장이 급속 성장함. BNPL 시장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 및 기존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진출하고 있음. 또한 미국·호주에서는 BNPL 모델을 적용한 보험상품 구매 특화 결제서비스도 개발됨. 그러나 채무불이행 위험 확대에 따른 각국 정책당국의 규제도 다소 강화되는 모습임

-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 핀테크 기술 발전, MZ세대 소비 수요 증가 등으로 선진국¹⁾을 중심으로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BNPL은 POS(Point-Of-Sale)대출의 한 종류로, 소비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자 대신 BNPL 서비스 제공업체가 먼저 대금을 가맹점에 전액 지불하고 소비자는 BNPL 업체에 대금을 분할로 납부함
 - 소비자는 BNPL 서비스 이용 시 높은 신용도를 요구받지 않고, 대개 별도의 이자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²⁾ 가맹점이 BNPL 서비스 제공업체에 할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구조임
 - BNPL 서비스 제공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대금의 약 1.5~7.0%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받고,³⁾ 가맹점은 다양한 소비자층 확보 및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음
 - 금융시장 분석기관인 S&P Global에 따르면, BNPL 시장규모는 2020년 89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3,500억 달러로 5년간 약 40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⁴⁾
 - 특히 소득이 낮은 MZ세대 및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비자의 수요에 힘입어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있음
- BNPL 시장은 주로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에는 Amazon, Apple 등 해외 빅테크 기업 및 기존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진출하는 모습임
 - 주요 BNPL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으로는 호주 Afterpay와 미국 Affirm, 스웨덴 기반 Klarna가 있으며, 옷, 화장품 등 소액 전자상거래 부문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급부상함
 - Paypal, American Express, Citi, JPMorgan Chase 등 기존 해외 금융기관도 잇따라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Apple도 Goldman Sachs와의 협업을 통해 'Applepay Later' 결제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임

1) 미국과 호주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상당히 엄격하고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이자)할부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2) 소비자가 BNPL 서비스 이용 후 구매대금 분할납부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일정 상한금액의 연체료를 부과함
 3)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2021. 11. 10), "The Appeal and Proliferation of Buy Now, Pay Later: Consumer and Merchant Perspectives"
 4)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2020. 12. 15), "Amid buy-now-pay-later boom, could banks still get in on the market?"

○ 특히 최근에는, 보험상품 구매에 특화된 BNPL 서비스가 미국·호주 등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함

- 호주 스타트업 Coverpay는 2021년부터 BNPL 방식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보험상품 구매 시 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플랫폼인 ‘Get Cover, Pay Later’를 제공함⁵⁾
 - Coverpay는 온라인 보험판매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보험상품 결제서비스 옵션 중 하나로 설정되어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 시 보험료를 12차례(2주 간격, 무이자) 분할하여 납부 가능함⁶⁾
 - Coverpay를 통해 구매 가능한 보험상품의 종류는 자동차, 주택, 기업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며 보험계약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인 상품이며, Coverpay를 통한 최대 보험계약 구매 한도는 2,500호주 달러임
- 보험결제 플랫폼 스타트업 Ascend도 미국 시장에서 BNPL 방식의 온라인 보험상품 특화 결제서비스를 제공함

〈표 1〉 해외 주요 BNPL 서비스 제공업체(스타트업) 현황

국가	제공업체	설립연도	사업모델	제공 금액	주요 분야	비고
호주	Afterpay	2014	소액결제 4회 분할 (Pay in 4)	\$250 미만	옷, 화장품 등	미국 핀테크사 Block 인수
스웨덴	Klarna	2005	소액결제 4회 분할 (Pay in 4)	\$250 미만	옷, 화장품 등	BNPL 최초 도입
미국	Affirm	2012	중액결제 할부	\$250~\$3,000	전자제품, 가구 등	Walmart, Amazon 제휴
호주	Coverpay	2021	중액결제 할부	\$2,500 이내	보험상품	보험상품 결제 특화

자료: 각 회사 웹사이트

○ 우리나라에서 BNPL 시장은 초기 단계로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 또는 출시를 준비 중임

- 네이버파이낸셜은 2021년 4월부터 최대 30만 원 한도의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쿠팡은 2021년 9월 ‘쿠팡 페이레이터(Couping PayLater)’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음
-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NHN 페이코와의 협업으로 BNPL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인터넷은행 토스도 2022년 3월 후불결제 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임⁷⁾
 - 국내 BNPL 서비스는 해외 BNPL 서비스와 달리 BNPL의 핵심인 분할납부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⁸⁾ 주로 후결제(Pay Later) 기능에 중점을 둠

○ BNPL 시장은 소비자에게 ‘편리성’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에 채무불이행 위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선진국 금융정책 당국은 BNPL 시장에 대한 감독 및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임

- S&P Global은 BNPL 고유 사업모델에 따른 소비자 신용도 확인 부족 및 신용위험 감수의 장기 지속성 여부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도 보고서를 통해 규제당국의 BNPL 시장 연체율(Default rate) 등과 같은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향후 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함⁹⁾
- 2021년 초, 영국 금융행위규제청(FCA)은 BNPL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¹⁰⁾ 2021년 12월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도 자국 BNPL 서비스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음

5) <https://coverpay.com.au/>

6) 보험상품은 초회 보험료 납입이 계약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제 시점에 1회차를 납부하고, 2주 후 2회차 납부가 시작됨

7) 한국경제(2022. 2. 21), “돈·신용카드 없어도 구매 가능’…후불결제 시장 열린다”

8) 개별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이 선정되기도 함

9) CNBC(2021. 8. 10), “The ‘buy now, pay later’ trend could be the next hidden source of consumer debt, analysts warn”

10) FCA(2021. 2. 2), “The Woolard Review - 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